

# '이른 추석'에 달라진 선물 판도... 갈비·정육세트 인기

### 광주신세계백, 축산물 사전 판매 매출 전년비 155% 상승 광주·전남 9개 롯데마트 13% ↑...유통업계 특판행사 돌입

5년 만에 찾아온 '이른 추석' (9월13일)에 추석 선물 판도가 달라졌다. '여름 추석'을 앞두고 공급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보다는 갈비, 정육 선물세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역 대형 매장들은 오는 19일부터 잇따라 추석 선물 본 판매를 시작한다. 13일 (주)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12일 동안 '사전 예약 추

석 선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축산 부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5% 뛰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추석 선물로 꼽혀온 청과 부문 매출은 8% 증가에 머물렀고 ▲가공기타 27% ▲수산 -8% ▲건강식품 -17% 등은 축산물에 비해 실적이 좋지 않았다. 광주신세계는 2~25일 100여 가지 품목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 '사

전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26일부터는 추석 특설매장을 열고 본격적인 선물세트 판매에 나선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축산 부문의 상승세는 이른 추석으로 과일보다 정육, 가공 선물 세트의 예약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와 같은 소비 경향에 맞춰 현지 바이어(구매상)가 발굴한 우수 로컬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추석을 앞두고 냉장 정육 선물 포장에 사용하던 스티로폼 대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선물 포장재를 사용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본 판매에서 광주·전남의 특산품으로 매대를 채울 예정이다. 광주점은 지난 22일부터 23일 동안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45% 올랐다. 판매 증가율은 수산물이 47%로 가장 높았고 ▲건강 46% ▲농산 21% ▲주류 10% ▲축산 10%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지역 9개 롯데마트의 지난 달 25일~8월13일 사전 예약 매출 증가율은 농산 32%, 가공 23%, 수산 18%, 축산 13%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점은 19일부터 '우수 생산자 직거래 세트 상품전'을 열어 엄선한 6가지 지역 특산품을 선보인다. 등심·부채살 등으로 구성된 '장흥 한우 세트' (25만원), '장흥 한우 육포 세트' (2입·시세 기준), '명품 활전복 세트 2호' (9마리·30만원), '완도 멸치 혼합 세트 2호' (7만5000원), '보성 이금숙 전통 세트 1호' (8만원) 등이다. 이외 영광 범성포 굴비 세트 황제 (2.7kg·200만원), 정남진 백화고 3호 (700g·25만5000원), 정남진 상황버섯

세트(13만원), 담양향과 세트 등도 이름을 올렸다. 광주 40개·전남 115개 전통시장도 추석 맞이로 분주하다. 안동순 광주시상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올해 기상여건이 좋아 사과·배 등 과일 작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다양한 수산물 가공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통통'(sijangtong.or.kr)를 통해 선물 특색에 맞는 전통시장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심은 벌써 '가을' 광주·전남지역에는 핼터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백화점은 벌써 가을 단장을 시작했다. (주)광주신세계 4층 여성복 매장 '모조에스핀'은 최근 올 가을 유행할 것으로 알려진 갈색 계열 가죽 재킷과 레오파드(표범) 무늬 스커트 등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무등산 수박 나왔다

### 롯데·신세계 백화점 판매...평년비 수확량 20% 줄어

광주 대표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이 지난 10일 출하한 뒤 지역 대형 매장에서 선보여지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주)광주신세계는 지난 12일부터 잇따라 무등산 수박을 판매하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 산기슭에서 재배되는 순재래종으로, 일반 수박보다 달고 시원한 맛을 지녀 예로부터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품으로 알려졌다. 진한 초록색에 줄무늬가 없으며 향이 깊고 영양가도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14kg 18만원, 18~20kg 28만원 등 무게에 따라 다양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무등산 수박의 올해 수확량은 예상치(3000톤)보다 20~30%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 식품매장에서 판매하는 '무등산 수박'. <광주신세계 제공>

## 롯데백화점 광주점 가전 최대 50% 할인

### 프리미엄 가전디지털 전문관 1주년 기념...선착순 사은행사도

롯데백화점 광주점 '프리미엄 가전 디지털 전문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20~50% 할인행사를 연다. 14일 광주점에 따르면 올해 1~7월 백화점 가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7%나 증가했다. 특히 삼성·LG 브랜드 매출은 62.9% 뛰

었다. 품목별 매출 증가율은 공기정정기 87.2%, 스타일러 39.2%, 건조기 38.7%, 에어컨 23.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백화점에서는 처음으로 가전 전문관을 도입한 광주점은 고급화 전략으로 신혼부부, 이사 가족 등 고객을 확보해왔

수 있는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경품으로는 LG 노트북, 삼성 큐브 공기정정기, 태팔 믹서기, 쿠쿠 전기그릴, 풍년 압력솥, 윤현궁 차림이불 등이 있다. 삼성전자는 15일까지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디지털 전문관에서 운영한다. 냉장고 구매 고객에게는 사은품과 함께 최대 40만원 상당의 S포인트를 준다. 또 18일까지 삼성 가전상품을 산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겨울 신상 패딩 싸게 살 기회

### 이마트 18일까지 자체브랜드 '테이즈' 할인 판매

광주·전남지역 8곳을 포함한 전국 이마트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자체브랜드(PB) 테이즈의 가을·겨울 신상 패딩 조끼 역시즌 마케팅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역시즌 마케팅은 지난 시즌에 팔고 남은 재고를 할인 판매하던 이번에는 올겨울 신상을 앞당겨 소개한다. 또 조끼 한 벌을 구매하면 한 벌을 추가로 증정한다.

이마트가 무더위가 이어지는 8월에 패딩 판매에 나선 것은 한발 앞서 겨울 신상품을 선보여 다음 계절상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 실제 이마트는 점포별로 겨울 상품을 30~60% 할인 판매한 결과 7월 한 달 간 전기히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1% 증가했고, 스포츠 방한화(1385%)와 아동 내의(87%)도 매출이 늘었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